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연구

— 지역 비교 분석과 교육 연계 기반 정책 모델 제안 —

목 차

Ⅰ. 서론 ---------- 1

Ⅱ. 이론적 배경 ---------- 5

Ⅲ. 청소년자원봉사 현황 분석 ---------- 7

Ⅳ. 대전·인천·부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비교 ---------- 9

Ⅴ. 광주지역 특성 분석 ---------- 14

Ⅵ.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모델 ---------- 18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22

- 요약문 -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환경을 반영한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심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사회 위기는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험 기반 학습과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경험학습 수단으로, 단순한 봉사시간 확보나 형식적 참여를 넘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성, 문제해결 역량,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핵심 경로로 기능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 비율은 약 77.7%에 달하며, 향후 참여 의향 역시 40% 이상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잠재 수요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봉사 경험은 성인기 시민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대전·인천·부산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전은 지역사회 밀착형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체 기반 경험을 제공하는 강점을 보였으며, 인천은 학교 교육과 NEIS 시스템 연계를 통해 봉사활동을 학습 및 진로 기록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부산은 글로벌·다문화 연계 봉사활동을 통해 활동의 다양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사례는 각각의 정책적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교육 연계성, 지속성, 자기주도성 측면에서 보완 과제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참여의 역사적 자산과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서 청소년자원봉사를 시민참여형 학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다만 현재의 청소년자원봉사는 기관별·사업별 운영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과정 연계, 정책적 통합 설계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중등교육 정책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기반 프로젝트형 봉사 △교과 연계 및 포트폴리오 평가 △청소년 자기주도 봉사 프로젝트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봉사 모델을 핵심 축으로 하는 정책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청소년을 봉사의 ‘대상’이 아닌 ‘기획자이자 실행 주체’로 전환하고, 봉사활동을 학습·진로·시민성 성장의 통합 경로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은 광주 청소년자원봉사를 일회성 활동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지방선거 및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고용 불안정, 1인 가구 증가,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청소년 세대는 학업 성취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시민적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 협업과 소통 능력, 문제 해결 역량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는 이러한 역량을 경험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 참여 활동이다.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는 단순한 선행이나 의무 활동이 아니라, 시민성 교육과 경험학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자원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나 진학을 위한 형식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속적·자기주도적 활동보다는 단기·일회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의 교육적·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청소년 참여와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정책은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교육정책·청소년정책·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지역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의미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광역시의 지역적·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1인 가구 증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성장 환경과 사회 진입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시민성, 공동체 의식,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성, 사회적 감수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자원봉사는 여전히 시간 중심의 실적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한 수단적 참여, 단기·비연속적 활동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도 자원봉사를 ‘학습’이나 ‘성장 경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의무적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자원봉사를 정책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 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비교적 안정적인 청소년 인구 규모, 촘촘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상담·복지 인프라, 그리고 민관협치 기반의 정책 경험을 축적해 온 지역이다. 이는 광주가 청소년자원봉사를 단순한 참여 정책이 아닌 ‘청소년 성장 기반 정책’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주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표준 모델로 확장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청소년자원봉사를 중등교육 정책,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 학습, 자기주도 프로젝트 학습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청소년이 봉사활

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사회적 역할을 경험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 연구의 필요성

첫째, 청소년 성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다.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사회적 고립의 심화,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등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학습과 관계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타인과 관계 맺고, 사회 문제를 인식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경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 중심·시간 중심 자원봉사 정책을 넘어, 학습과 성찰이 결합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기반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이다. 국가 단위 정책이나 제도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제 청소년의 삶의 맥락과 지역 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정책은 지역의 역사, 문화, 시민사회 자원, 청소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실질적 연계 필요성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교육과 분리된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청소년자원봉사를 교과 학습, 진로 탐색,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함으로써,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학습 경험과 삶의 경험을 통합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청소년자원봉사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재정립이다. 청소년자원봉사를 단순한 사회 기여 활동이 아닌,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핵심

경험 학습으로 정의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그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분석한다.

둘째, 국내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비교 분석이다.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 운영 방식, 성과 및 한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광주형 모델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광주광역시 청소년 인구 및 지역 특성 분석이다. 광주의 청소년 인구 구조, 사회·문화적 환경, 기존 청소년자원봉사 인프라와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광주형 정책 모델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방향성을 구체화한다.

넷째,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모델 제안이다. 해외(유럽·미국) 우수 사례에서 도출한 핵심 요소와 국내 제도 환경을 종합하여, 교육 연계형, 프로젝트 기반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등 다층적 정책 모델을 설계한다. 특히 두볼, 1365, VMS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 및 평가 체계 제안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율, 지속성, 학습 성과, 지역사회 효과 등을 포함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의 방향을 모색한다.

2.4 기대되는 연구의 활용성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연구, 교육정책 연계 사업, 민관협치 기반 청소년 참여 정책 설계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제안하는 광주형 모델은 청소년자원봉사를 통해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이 자발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성인 자원봉사와 달리,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청소년자원봉사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성이다. 강제성이 아닌 내적 동기 기반 참여가 전제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둘째, 학습성이다. 봉사활동은 경험학습 이론에 따라 '경험-성찰-개념화-적용'의 순환 구조를 통해 학습 효과를 창출한다.
셋째, 사회참여성이다. 청소년은 봉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자원봉사는 인성교육, 시민교육, 진로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 학습 활동으로 평가된다.

2. 경험학습 이론과 청소년자원봉사

콜브(D. Kolb)의 경험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천의 순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자원봉사는 이 네 단계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대표적인 학습 형태이다.
청소년은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제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활동 이후 성찰과 나눔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다.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보다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실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민성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봉사활동 경험은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청소년자원봉사가 단기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험임을 시사한다.

3. 청소년자원봉사의 정책적 가치

청소년자원봉사는 개인 차원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예방적 사회정책 수단이다. 둘째, 지역사회 문제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세대 간 연대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최근 청소년정책에서는 자원봉사를 단순 실적 관리 대상이 아닌, 역량 기반 성장 정책으로 재정립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Ⅲ. 청소년자원봉사 현황 분석

1. 전국 청소년자원봉사 참여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은 약 70%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참여 형태는 학교 주도의 단기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수는 연간 약 18만~20만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연간 약 6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반복 참여율과 장기 프로젝트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심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청소년의 인식 및 참여 동향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다수는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학업 부담과 정보 부족, 활동의 단조로움 등을 참여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의미 있는 활동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은 봉사활동의 학습적 설계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청소년자원봉사 정책이 단순 참여 확대가 아니라, 교육과정 연계, 자기주도성 강화, 성찰 구조 도입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정책적 시사점

현황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자원봉사는 참여 기반은 확보되어 있으나, 질적 심화와 지역 특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정책과 연계된 체계적 모델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① 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조적 연계,

②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 확대,
③ 지역사회 의제 기반 활동 설계,
④ 성찰·기록 중심의 학습 구조 도입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Ⅳ. 대전·인천·부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비교

1. 정책 및 운영 비교 요약

구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정책 방향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 활성화	학교 및 시스템 연계 봉사 확대	글로벌 교류 및 다양성 중심 봉사
운영 주체	시 + 청소년센터 + NGO 연계	시 + 교육청 + NEIS 시스템 연계	시 + 시민단체 + 대학/국제기관
주요 지원 체계	자원봉사포털 및 캠페인 추진	NEIS 봉사연계, 학교활동 기록 연계	국제캠프, 문화교류봉사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지원	봉사시간 인증/포상제	학적 시스템(NEIS)과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및 수료증 발급
특징적 프로그램	지역사랑 마을 단위 봉사	학습·진로 통합형 봉사	해외·다문화 연계 사례 프로그램
성과 지표	참여율, 참여시간, 프로그램 수	연계성·진로기록형 봉사 실적	다양성·연령별 참여 확대

2. 지자체별 사례 분석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을 ‘생활 속 실천활동’과 ‘학습형 참여’로 나누어 구조화하며,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한 지역 기관은 청소년의 자발성과 프로젝트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단순 시간 누적형 봉사에서 벗어나 체계적 경험형 자원봉사 실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 사례로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및 청소년자원봉사 포상 체계가 있다. 이 대회는 청소년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우수 봉사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며, 참여자에게 성취감 및 지속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함으로써, 자기주도형

봉사 실천을 장려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사례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지원 사업: 프로젝트 리더’로, 청소년이 직접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실천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학교 동아리 또는 청소년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구성 단계에서부터 활동 설계, 운영, 평가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문제해결 역량・협업 능력・사회적 책임감을 활동 속에서 체득하게 된다.

대전은 또한 지역사회의 대형 행사(예: 대전 0시 축제) 자원봉사 운영을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개방함으로써, 광범위한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현장 보조를 넘어 봉사자 스스로 행사 기획・운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화 행사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경험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전은 가족봉사단 활동 및 청소년 연합 동아리 자원봉사 공모전,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교육 및 간담회, 환경정비・재난대응 교육 연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연령층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공동체 실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쌓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전의 자원봉사 정책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을 설계・운영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단기 봉사 시간 누적이 아닌 성장 중심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특징이 뚜렷하다.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청소년자원봉사 정책을 ‘문화 확산’과 ‘참여자 인식 강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두볼(DOVOL) 기반 우수 사례 발굴 및 대회 중심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전체 봉사 활성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인천청소년자원봉사대회가 있다. 이 대회는 인천지역 청소년, 동아리, 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자원봉사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행사로, 단체부문 및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이 진행된다. 이 대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은 자원봉사를 성취경험·문화적 실천으로 인식하게 되며,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2025년도 인천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는 미래봉사단(인천미래생활고), 패션창업반 체리쉬(인천디자인고), 나누밍(남동청소년센터)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개인 참가자도 국가 포상까지 수상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 동기가 강화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봉사의 의미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 기관 및 센터를 연계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봉사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남동청소년센터의 ** 청소년기획봉사단 ‘나누밍’은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봉사 활동을 2026년까지 지속하는 프로젝트로, 봉사 설계부터 실행까지 청소년 주도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은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 동기와 선호 영역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체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 참여 프로그램을 넘어서 청소년 욕구에 기반한 봉사환경 구축의 기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인천은 대회 중심의 우수 사례 발굴과 지역 기관 간 네트워크 기반 봉사문화 확산, 현장 경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설계이라는 구조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및 문화 참여형 활동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부산시는 광역 차원의 봉사 정책과 함께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교 단체 간 협업 구조를 강화

하여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 사례는 Youth Community Program(청소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2025년에는 50개 청소년 커뮤니티 팀이 지원을 받아 활동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재능 공유 ▲지역사회 참여 ▲문제해결형 활동 ▲자율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팀이 구성되어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특히 이 사업은 청소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 대상 문화공연 및 체험을 제공하는 팀, 해양 환경 업사이클링 팀, 공동 체육·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연결형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며,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활동을 설계·수행함으로써 봉사 참여의 질을 높인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활동은 부산교육청 국제교류 청소년 자원봉사단 활동이다. 2025년 부산교육청은 42명의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국제 자원봉사 그룹을 베트남, 일본,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글로벌 시민성과 문화 상호 이해를 체험하며 봉사활동의 의미를 확장했다.

부산은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 및 국제 NGO와 협력하여 청소년 돌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봉사 경험이 사회적 책임과 결부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의 정책적 특징은 커뮤니티 기반 활동과 글로벌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폭을 넓히고, 봉사참여를 삶과 연결된 경험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3. 비교 평가 종합

세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특징이 도출된다.

① 대전은 ‘청소년자원봉사대회·프로젝트 리더 활동’ 등 청소년 주도형 실천

활동 강화에 집중하여 경험 중심 봉사 생태를 구축하고 있다.

② 인천은 ‘우수사례 발굴·대회 중심 문화 확산’ 및 현장 욕구 분석 기반 정책 설계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③ 부산은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과 ‘국제 자원봉사 연계 활동’으로 참여 폭 확대 및 글로벌 시민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광주형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설계할 때, “주체적 참여 경험 + 문화적 확산 + 글로벌 연계”라는 정책 요소의 통합적 적용 방향을 제시한다.

Ⅴ. 광주지역 특성 분석

1. 인구 및 청소년 인구 통계 비교

2025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총 인구는 약 1,394,301명, 이 중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약 242,090명 이며, 세대 구성에서 청소년층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461,628명으로 광주보다 규모가 크며, 대전광역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231,367명, 인천광역시 청소년 인구는 약 446,054명 수준이다.
이 통계는 광주가 인구 규모는 중간이지만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 정책 수립 시 단순 수치보다 청소년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광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청소년 비중이 상당하며(전체 인구 대비 약 18% 수준), 고교 및 대학 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층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2. 청소년 특성 및 사회환경

① 민주・참여・인권 기반의 지역문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민참여, 인권의식, 사회적 연대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청소년 문화와 정책에서도 중요한 특성이 되며,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을 시민참여형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 유리한 토대를 형성한다.
또한 광주는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광주광역시는 17개 시・도 대상 청년 정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청소년 실직 지원, AI 교육, 체험 지원 등 정책 포함).

② 청소년 경제・정책 수요 증가
광주 지역에서도 청년・청소년의 취업・진로 지원 수요가 높다, 예컨대 광주시는 청년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 내 고용 및 교육 기회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③ 복지・연대적 환경
광주는 지역 공동체 중심 프로그램과 포용적 복지 정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며,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산학협력 및 커뮤니티 교육 콘텐츠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3. 청소년자원봉사 현황 및 시스템

① 두볼(DOVOL), 1365, VMS 시스템 개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스템은 두볼(DOVOL), 1365 자원봉사포털, VMS(봉사관리시스템)이다. 각각의 시스템은 서로 다른 역할과 강점을 보유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의 참여・기록・관리 측면을 보완하고 있다.

▣ 두볼(DOVOL: Do Volunteer)
- 정의: 청소년 전용 봉사활동 정보 제공 플랫폼
- 주요 기능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검색・신청
  활동 내역 확인 및 인증서 출력
  NEIS(학교생활기록부) 연계 기능 제공
- 강점
  청소년 계층 특화 시스템으로 연령 제한(만 9세 이상)에 맞춘 활동 정보 제공

청소년시설중심의 봉사 기회 접근성 강화

- 활용 예시

청소년 수련시설이 두볼에 봉사활동을 등록해 청소년 이력 관리

▣ 1365 자원봉사포털

- 정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 표준 자원봉사 참여·관리 시스템
- 주요 기능

NEIS(학교생활기록부) 연계

전국 단위 봉사활동 검색·예약

활동 실적 확인, 인증서 발급

개인 봉사활동 이력 저장 및 통계 분석

- 강점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국 통합 플랫폼

기관(센터·시설) 입장에서도 봉사자 모집 및 기록 관리가 용이

- 청소년과의 연결

청소년도 1365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관 봉사에 참여 가능

운영기관은 활동 이력을 쉽게 기록·보고로 활용 가능

▣ VMS (Volunteer Management System)

- 정의: 자원봉사 수행의 관리·운영 체계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

기관이 봉사자 모집, 교육, 활동 배치, 평가까지 통합 운영·관리

- 주요 기능

기관별 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정·출석 현황 체크

활동평가 및 만족도 조사

봉사자 교육·연수 이력 관리

- 강점

기관 중심 관리 시스템으로 자원봉사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성을 확보

청소년 대상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평가하는 데 효과적

② 시스템 간 상호 보완 관계

시스템	주요 기능	강점	청소년 자원봉사 측면 기여
두볼 (DOVOL)	청소년용 봉사정보 제공	청소년 특화 플랫폼	진입 장벽 낮춤
1365 포털	전국 봉사정보 연계	공공·민간 통합 참여	대규모 봉사 기회 제공
VMS	기관용 운영·관리 시스템	봉사자·프로그램 관리	체계적 운영·품질 관리

이처럼 두볼, 1365, VMS는 상호 보완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두볼은 청소년 참여 접근성을, 1365는 대규모 참여 기회를, VMS는 기관 운영관리 역량을 증진시킨다.

③ 광주지역 적용 사례

광주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두볼・1365 연계 봉사활동을 모두 등록하여 청소년이 플랫폼 선택권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VMS를 활용하여 활동 평가・피드백 및 봉사자 교육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봉사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Ⅵ.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모델

1. 정책 방향과 전략 구조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의 활성화 전략은 세계적 우수 사례의 실천적 교훈과 국내 현실의 실행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하여 설계해 보고자 한다. 주요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 세계적 경험 기반: 청소년이 자발적 봉사 참여를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 및 자기주도적 성장 경로로 연결
▣ 국내 연계 중심: 학교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두볼・1365・VMS 등 시스템 연계로 지속 가능한 봉사 체계 구축
▣ 광주 특성 반영: 지역 민주・인권 문화와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공동체 중심 프로그램 설계

정책 구조는 크게 (1) 국제 벤치마크 활용 모델, (2) 국내 연계 실행 모델, (3) 실행 체계 및 평가체계로 구성한다.

2. 해외 우수 활동 사례 분석

(1) 유럽의 사례: European Solidarity Corps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European Solidarity Corps는 18~30세 청년이 사회・환경・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사회적 연대 강화 및 문화 간 교류 경험을 쌓으며, 봉사기간 동안 숙식비・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국제 봉사는 단순 체험을 넘어 세계 시민성 및 공동체 책임감을 형성하는 기회로 기능한다.

▣ 정책적 시사점
- 참여자의 일상적 체험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글로벌 시민교육 기회를 부여
- 재정・행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며, 참여자에게 실질적 성장 경로 제공

(2) 영국의 사례: Millennium Volunteers / Saltire Awards

영국의 Millennium Volunteers(MV) 프로그램은 14~24세 청소년의 봉사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프로그램은 참여 시간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고 자발적 참여를 격려하며, 청소년이 일정 시간을 봉사할 때 공식적 증명을 통해 성취감을 제공한다.

▣ 정책적 시사점

- 반복적 참여동기 강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인증서・포상) 마련
- 사회적 자본 축적: 청소년이 장기간 봉사에 참여할 경우 향후 경력・교육 이력으로 활용 가능

(3) 미국 사례: Lion’s Heart & buildOn

미국 내 Lion’s Heart는 6~12학년 청소년의 조직적 봉사 참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각 학년・성별 그룹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연간 최소 3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 시간을 목표로 진행한다. 개인 또는 그룹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봉사 의제와 실행을 기획・수행한다.

또한 buildOn은 도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봉사체험과 함께 국제 봉사활동 기회(예: 해외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지역과 글로벌 수준의 시민참여 경험을 동시에 강화한다.

▣ 정책적 시사점

- 청소년 주도형 참여 구조로 자율성・책임성을 강화
- 지역과 글로벌 시민성 결합으로 봉사 경험을 확장

3. 국내 연계 모델 중심의 실행 구조

광주형 모델은 해외 사례의 자발성과 성장성을 국내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핵심 정책 실행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제안된다.

(1) 교육정책 연계 모델

▣ NEIS · 학적연계 기반 봉사 학습체계 구축

- 두볼, 1365, VMS 시스템과 연계한 청소년 봉사활동 학적 기록・진로 포트폴리오 구조 마련
- 봉사시간 뿐 아니라 학습성과 측정 지표(책임성・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 등) 개발

※ 사례: 서울 서초구 '서리풀 봉사학습 실천학교'는 청소년이 봉사 기획부터 평가까지 봉사학습의 교육 통합 모델을 운영한다.

- 정책 효과

진로 · 학업 목표와 연계된 봉사 체험 제공

학교 수업과 체험학습 간의 경험적 학습 순환 유도

(2) 창의적 체험활동 확장 모델

▣ 프로젝트형 봉사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이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설계・실행・성과 공유하는 창의적 봉사 프로젝트 운영

예: 환경 문제(기후위기 캠페인), 복지 이슈(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문화 커뮤니티(공공예술 연계 봉사) 등

활동 결과는 포트폴리오・인증서・성과보고서로 기록되어 청소년 본인의 성장 경로로 활용

- 정책 효과

자기주도성 · 협업능력 · 문제해결능력 강화

정책형・프로젝트형 활동으로 동기와 지속성 제고

(3)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모델

▣ 커뮤니티 기반 연대 활동

- 광주 지역사회 내 현안(기후・민주・인권・문화)과 연계

- 청소년과 시민단체, 행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의제 해결형 봉사 프로젝트

  예: 광주 로컬 복지센터・문화기관・환경단체와 협업한 정기적 봉사 캠페인 운영

- 정책 효과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강화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성 함양

4. 실행체계 및 평가체계
: 광주형 모델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다음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지표 중심 평가 체계
참여율(%): 청소년 인구 대비 봉사 참여자 비율
지속성(누적 시간): 장기 참여 청소년 비율
학습성과 지표: 책임감,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치화
지역사회 성과지표: 지역문제 해결 건수・성과평가

▣ 데이터 기반 운영
두볼・1365・VMS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량/정성 데이터 수집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 성과 공유 및 확산
연례 보고서 발간, 우수 사례 공유 세션 운영
지역 내 다른 분야(예: 청소년 문화・진로)로 프로그램 모델 확산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교육적·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대전·인천·부산의 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광주지역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자원봉사는 단순한 봉사 시간 누적이나 활동 실적 관리의 차원을 넘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험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천의 사례에서 나타난 학교 교육과의 체계적 연계, 대전의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 구조, 부산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강조한 운영 방식은 각기 다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핵심은, 청소년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운영을 넘어, **교육·지역·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참여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및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자원봉사 운영은 학교, 청소년시설, 지역사회 간 연계가 충분히 구조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봉사활동의 학습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환류하는 정책적 장치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모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자원봉사의 교육정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과 분리된 별도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중등교육 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과 연계된 경험학습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봉사활동 기록 체계를 고도화하고, 봉사 경험이 학생의 성장과정과 진로 탐색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주도형 자원봉사 프로젝트 확대**가 요구된다. 청소년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실행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

동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책임감,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봉사활동 설계**가 필요하다. 광주지역의 사회적 의제(기후위기, 돌봄, 인권, 문화 등)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설계함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자원봉사를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확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활동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 기획·운영·평가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관 중심의 단절된 운영을 넘어, 광주형 통합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은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아니라 '성장을 만드는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청소년자원봉사가 교육, 지역사회, 시민성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때, 광주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자원봉사는 '지금의 선행'을 넘어 '미래 시민을 준비하는 학습'이다. 광주형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중요한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다.